

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	<h1>보 도 참 고 자 료</h1>			
배 포 일	2020. 1. 28.(화) / (총 9매)			
위기대응생물테러총괄과	과 장	박 혜 경	전 화	043-719-9050
	담 당 자	김 은 경		043-719-9064
검역지원과	과 장	김 금 찬		043-719-9200
	담 당 자	손 태 종		043-719-9210
위기분석국제협력과	과 장	이 선 규		043-719-7550
	담 당 자	주 재 신		043-719-7552
신종감염병대응과	과 장	곽 진		043-719-9100
	담 당 자	김 성 순		043-719-9101
감염병진단관리과	과 장	이 상 원		043-719-7840
	담 당 자	김 갑 정		043-719-7848

지역사회 확산 방지 위해 총력 대응

- 최근 14일내 중국 우한으로부터의 입국자 전수조사 실시 -

□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(본부장 박능후)와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(본부장 정은경)는 감염병 위기 단계를 ‘경계’로 상향함에 따라 지자체와 함께 지역사회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.

○ 무증상기에 입국*한 후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환자를 조기에 확인해 조치하기 위해 지자체별 선별진료소**를 추가 확대한다.

* 중국 외 국가로 유입된 사례 중 검역단계에서 인지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50건 중 7건 수준

** 선별진료소 288개 운영 (1월 28일 현재)

- 또한, 질병관리본부 상담센터(1339) 인력도 추가 확보하고 '자주 묻는 질문'은 지자체별 주민콜센터에 배포하여 대기시간 단축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해 나가기로 했다.
 - 확진 또는 의심환자 입원에 필요한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은 현재 29개 병원 161개 병실을 운영중이며,
 - 의심환자 신고 증가에 대비해 지역별 거점병원 및 감염병관리기관 등의 병상도 동원가능토록 준비하고, 필요시 감염병관리기관을 추가 지정하는 등 단계별로 확보할 예정이다.
 - 또한,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가 가능하도록 검사 기술과 자료를 제공, 이르면 2월초부터 현장 활용이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.
- 최근 14일 이내 중국 우한으로부터의 입국자 전수조사도 실시한다.
- 현재까지 출입국기록 등으로 파악된 우한공항에서의 입국자는 총 3,023명(내국인 1,166명, 외국인 1,857명)으로, 지자체 및 건강보험 심사평가원과 함께 일괄 조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.
 - 우한에 다녀온 내국인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확인되는 경우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이송해 격리·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,
 - 외국인은 출국 여부를 우선 확인하고, 국내 체류자의 경우 경찰청 등과 협조하여 조사를 추진한다.

- 아울러, 네 번째 환자의 역학조사 확인 내용도 공개하였다.
 - 현재까지 파악된 접촉자는 172명이고, 가족 중 1명이 유증상자로 확인되어 격리조치 후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음성으로 확인되었다.
 - 환자는 증상 발현 후 주로 자택에 머물면서 의료기관 방문 외에는 별다른 외부활동을 하지 않았다. 입국시 탑승한 항공기, 공항버스, 방문 의료기관은 모두 환경소독을 완료하였다.
- 1월 28일 오전 10시 현재 총 116명에게 검사가 이뤄졌고, 4명 확진, 15명은 검사가 진행중이며, 97명은 검사결과 음성으로 확인되어 모두 격리해제 되었다.
- 질병관리본부는 중국으로부터 입국 이후 14일 이내에 의심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외 활동을 삼가고, 반드시 관할 보건소, 지역 콜센터(☎지역번호+120), 질병관리본부 상담센터(1339)의 상담을 먼저 받은 뒤 의료기관을 방문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.

<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국민 행동수칙 >

-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 (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)
- 후베이성 등 중국 방문 후 의심증상 발생 시 관할보건소 또는 1339 문의
- 중국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려주기

- 또한,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면회객 관리 등 감염관리 조치에도 적극 협조해 줄 것도 당부했다.

- 의료기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고, 해외 여행력 확인, 선별진료소 운영, 의심환자 진료시

반드시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 등 “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의료기관 행동수칙” 준수를 재차 당부했다.

<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의료기관 행동수칙 >

- 호흡기 질환자 진료시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
- 의심되는 호흡기 질환자 내원 시 선별진료 철저 (여행력 문진 및 DUR 활용 등)
-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될 경우 관할 보건소로 신고

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,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- <붙임> 1.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발생 현황
2.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
3. ‘여행력 알리기’ 의료기관 안내 포스터
4. 감염병 예방수칙

붙임1

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발생 현황

□ 국내 신고 및 관리 현황 (1.28일 10시 기준)

구분	확진 환자 ¹⁾	조사대상 유증상자 ²⁾		
		계	격리중	격리해제
누계 (1.3~28)	4	112	15	97

1) 임상증상, 여행력, 검사결과를 종합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로 확진된 자

2) 임상증상, 여행력 등을 고려하여 격리조치 및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유증상자
(의사환자를 포함)

붙임2

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

질병관리본부
KCDC

해외감염병
NOW
질병관리본부 콜센터

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행동수칙

주요증상

발열 폐렴 호흡기 증상
기침, 인후통 등

위험요인

중국 방문 후
증상 발현

중국 방문객은

해외여행 전
해외감염병NOW.kr에서
감염병 정보 확인하기

동물(가금류 포함)
접촉 금지

발열, 호흡기증상자와의
기침, 인후통 등
접촉 금지

흐르는 물에
30초 이상 손 씻고,
옷소매로 가리고 기침하기

중국 방문후, 증상*발생 시

*주요증상: 폐렴, 발열, 호흡기 증상(기침, 인후통 등)

관할보건소 또는
질병관리본부 콜센터
1339 상담하기

마스크 착용*하기
*특히 외출,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착용

선별진료소* 및
의료기관 방문 시
해외여행력 알리기
*선별진료소 안내:
관할 보건소 및 지역번호+120

게시일 : 2020.1.28



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

감염병 예방 수칙



손바닥, 손톱 밑
비누로 꼼꼼하게 손씻기!



기침할 때
옷소매로 가리기!



기침 등 호흡기 증상자는
의료기관 방문 시
반드시 마스크 착용



선별진료소 및 의료기관
방문 시 의료진에게
해외여행력 알리기



감염병 의심될 때
관할보건소 또는 1339 상담

*선별진료소 안내 : 관할 보건소 및 지역번호 +120

중국 여행 시 주의사항



동물(가금류 포함) 접촉 금지



현지 시장 및 의료기관 방문 자제



발열, 호흡기 증상자(기침, 인후통 등)
접촉 금지



· 기침시 마스크 착용
· 손씻기, 기침예절 등
개인위생 수칙 준수



· 중국 여행 후 입국 시 건강상태질문서 제출
· 귀국 후 발열과 호흡기 증상(기침, 인후통 등)
발생 시 관할보건소 또는 1339 상담

* 감염병 발생 정보 확인 : 해외감염병 NOW 에서!

발행일 : 2020.1.28

붙임3

‘여행력 알리기’ 의료기관 안내 포스터

질병관리본부 KCDC

1339
질병관리본부 콜센터

당신의 여행력
모두의 행복을 위해 **당당히**
말해주세요!

해외여행 후, 의료기관 및 보건소 진료시
의사에게 해외여행력을 알려야
감염병을 신속히 진단할 수 있습니다.

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, 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 꼭꼭꼭!!!



*해외여행력이란?
여행, 출장 등의 목적으로
해외를 방문한 경험

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.hira.or.kr

해외감염병NOW www.해외감염병now.kr

붙임4

감염병 예방수칙



비누로 꼼꼼하게
30초 이상

[올바른 손씻기 6단계]



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로
많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

기침할 때 옷소매로
입과 코를 가리고!



[올바른 기침예절]



발행일 2019.11.5.